

피시디아와 시디 그리고 안탈리아를 빛나게 한 성인들 (2020. 7. 19)

오늘 축일로 지내는 피시디아와 시디 그리고 안탈리아 교회의 수천 명에 달하는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천 명의 성인들 중 18명의 성인은 이름이 익히 알려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5세기 무렵, 이곳 교회에서 활동한 거룩한 대사제들입니다. 451년, 할키돈에서 열린 제4차 세계 공의회에는 18명의 대사제들이 포함된 100여 명의 거룩한 교부들이 참석했는데, 오늘이 바로 이분들의 축일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성인들 외에도 피시디아와 팜필리아 지역의 모든 거룩한 성인들도 함께 축일로 지냅니다. 이분들은 구름처럼 모인 영적인 무리로서 강렬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축일로 지내는 성인들과 세계 총대주교청의 결정으로 사도 시대부터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순교한 모든 성인들을 오늘 축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출생지나 순교한 장소는 시낙사리온에도 있듯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오늘날 터키 알바츠), 스파르티(이스파르타), 셀켈레브키아와 소조폴리(우룸볼루), 안탈리아, 마기도(라라), 페르기, 셀리, 시디와 그 외 여러 지역과 오늘날의 안탈리아를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믿음으로 흘렸던 영광스러운 피와 거룩한 교부들의 눈물로 물들여진 곳입니다.

이처럼 오늘이 축일인 성인들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시낙사리온에 기록된 것처럼 7월 19일 단 하루 동안 피시디아에서 순교한 숫자만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은 64명에 불과합니다. 또 사도 바울로와 사도 바르나바처럼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성인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서품을 준 피시디아의

세켈레브카 주교 성 아르테미아스처럼 성 아퀼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는 셀르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사제들과 순교자들 수도자들 중에는 형제 자매지간이거나 친구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순교자는 124년 끼리아코와 테오도로인 자신의 아이들과 순교한 부부 에스페로스 와 조이처럼 가족 성인들도 있습니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순교한 성 마리아 대순교자도 있고 연로한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인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합일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자신과 그리스도의 지향점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 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그들도 똑같이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또 스스로 원해서 자유롭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 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필립비 4,8-9)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러한 충고들은 성인들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3세기 동안 이어진 혹독한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한 이단 통치자들이나 다른 종교가 창궐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법정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부정하고 이교도 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성인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로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35-37)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인들은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로 남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순교를 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디었고 그 결과로 영적인 경기를 주신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거룩한 월계관과 하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고통받은 이 성인들의 투쟁과 순교를 경축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을 더욱더 경축하는 더 깊은 뜻은 이분들의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에서 영감을 얻고 본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토 전 4,16)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유롭게 참된 하느님을 믿도록 성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여러 종류의 유혹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흥미를 갖고 향락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믿음을 잃게 되고 에페소 2장 12절 말씀처럼 "그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으로서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된 채 이 세상에서 희망도 하느님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위험들은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성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들의 빛나는 삶을 잘 살펴보고 따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구원자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도 성인들과 함께 하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격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